

전체 주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메시지 2

아브라함의 하나님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단과 천막의 삶을 삶

성경: 수24:2-3, 행7:2, 히11:8-10, 창12:1-3, 7-8, 13:3-4, 18

**I.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이들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이다—갈3:6-9, 롬4:12.**

- A.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가 믿음으로 살고 행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거절하고, 자신을 제쳐두고, 자신을 잊어버리고, 다른 어떤 분에 의해 산 것을 의미한다—갈2:20.
- B.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현재 우리 가운데서 반복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은 아브라함의 삶과 역사의 추수이다—롬4:12.
- C. 아브라함이란 부르심 받아 나와 더 이상 자신에 의해 살거나 행하지 않고 타고난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사람이다—수24:2-3, 창12:1-3.
- D.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방식은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이들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다—롬4:12.

**II.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했다—히11:8, 롬4:1, 12, 갈3:7.**

- A.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질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부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를 부르셨다—행7:2.
  - 1. 하나님의 영광은 그에게 커다란 매력이었다. 그것이 그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분별시켰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한 큰 격려와 힘이었다—출29:43, 창12:1, 4.
  - 2.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영광으로 신약의 믿는이들을 부르신다—벧후1:3.
- B.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를 그의 타락한 상태에서 불러 내시고 생명나무이신 그분 자신께로 되돌리기 위함이었다—행7:2, 창12:1-3.
  -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것은 생명나무의 나타남이었다—2:9.
  - 2.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존이고, 생명나무로 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요15:4-5.
- C.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한채 믿음으로 나갔다—히11:8.
- D.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하나님의 요소를 그의 존재 안으로 옮겨부으심에 대한 반응이었다—행7:2.

**III. 아브라함은 제단과 천막의 삶을 살았다—히11:9, 창12:7-8, 13:3-4, 18.**

- A.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은 다음 천막을 쳤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12:7-8.

1.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어떠함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배이다—시43:4상.
    - a. 제단이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이심을 뜻한다.
    - b. 아브라함은 제단을 세움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돌아본 후에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았다—창12:7-8.
  2. 아브라함이 천막에서 산 것은 그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간증했다—히11:9-10.
    - a. 천막은 제단의 결과이다. 제단과 천막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분리될 수 없다.
    - b. 천막을 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표명하는 것이다—15-16절.
  3. 아브라함은 서로 대조적으로 맞서 있는 벰엘과 아이 사이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다—창12:8.
    - a. ‘벰엘’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아이’는 ‘폐허더미’를 의미한다.
    - b.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생활인 벰엘만이 가치 있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폐허더미일 뿐이다.
  4. 아브라함에게 실패들이 있었고 제단과 천막을 버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복이 있었는데, 회복은 제단과 천막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9-10절, 13:1-4.
- B. 나그네와 객인 아브라함은 “설계자와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렸다” —히11:10.
1. 제단과 천막의 삶을 삶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이방 땅에서 믿음으로 체류하고 있었음을 간증했다—9절.
  2. 뛰어나고 사랑스런 새 예루살렘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요, 하늘에 속한 순례자들의 목적지이자 목표이다—13-16절, 벰전1:1, 17, 2:11.
  3. 아브라함의 천막은 궁극적인 천막인 새 예루살렘의 축소형이었다—창12:8, 13:3, 18:1, 히11:9, 계21:2-3.
    - a. 이기는 이들은 천막에 살면서 영원한 장막과 참된 초막절인 새 예루살렘을 고대한다—레23:39-43.
    - b. 우리는 그 완결—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교회 생활이라는 ‘천막’ 안에 살고 있다—히11:10.
    - c. 새 예루살렘은 이기는 이들이 새 예루살렘—영원한 시온 산—을 향해 여행하면서 왕국 시대에 있는 새 예루살렘 전에 어떻게 천막에서 살았는가를 기억하는 장막일 것이다—계21:2-3.
- C.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의미하는 제단을 쌓고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리키는 천막을 칠 것이다—롬4:12.